

山林經營會報

發行人：韓 榮 錫
 主 幹：崔 東 均
 發行處：韓國山林經營者協會
 住 所：서울特別市城北區安岩洞
 5街 134-58
 電 話：923-4372

石材産業 - 開發爲主 立法은 危險한 發想

保存, 開發, 調和있는 政策 이 루워져야

山林法 補完으로 現制度 바람직

근자에 新聞報道를 통하여 보면 石材業務가 그 所管이 山林廳存屬이나 勳資部로 옮겨야 좋으나 하
것으로 兩部處間에 치열한 所管 다툼이 일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本誌는 작년에 勳資部에서 開發爲主의 石材産業法 制定을 爲하여 立法豫告를 했을때 두차례에 걸
本會의 立場을 뚜렷이 밝히고 勳資部長官에게는 물론, 關係 要路에 立法 反對建議를 한바 있기때
에 여기에서는 중복된 이야기는 피하려 한다.

다만 우리가 調査한바로는 勳資部에서 推進하려는 石材産業法案이 昨年 11月경 經濟長官會議에서
선 保留키로 決定을 보았기 때문에 그동안 몇달동안은 잠잠하였으나 언제 또다시 舉論될지를 몰
항상 개운치 않은 심정으로 지켜보고 오던터에 이제 또다시 兩 部處間에 本格的으로 所管 다툼이
開된듯한 印象을 받고 보니 直接 利害當事者인 우리들 山主들은 큰 關心을 가지고 있는 程度가 아
라 神經을 곤두세우고 注視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한번 同 立法案에 關하여 反對意見을 強力히
明하는 바이다.

山主意思에 反하는 採石權 設定은

私有財產權 侵害

왜냐하면 勳資部에서 立法을 推進하고 있는 石材産業法案은 開發爲主의 立法이기 때문에 山主와 採
權者間의 相關關係로 보아 採石權者에게만 有利하고 山主에게는 私有財產權 侵害의 우려가 強한 毒
條項이 있기 때문이다.

內容인즉 採石權을 鑛權과 같은 次元에서 認定한다는 것이며 山主와의 意思가 一致되지 않을 경우 紛爭으로 寧日이 없을 것인데 이런 경우 動資部長官에게 裁決權이 주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長官의 許可로 土地收用도 可能토록 한다는 것이다.

우리들 山主는 常識이 通하는 社會를 願한다.

動資部는 必要以上고집으로 疑惑받지 말아야

우리들 山主들은 法理論을 專門으로 잘 알지 못하는 까닭에 石材産業法案이 어느程度의 高次의 法理論을 바탕으로한 法律案인지는 알수도 없고 굳이 알 必要도 느끼지 않으나 다만 우리들 山主들은 一般的인 보편 妥當性 있는 常識이 通할 수 있는 行政이 되도록 法の 뒷받침이 되고, 또그런 常識이 通하는 社會가 되면 그뿐인것이다.

그런데 다른것은 모두 접어두고서라도 우리가 알기에는 石材産業法案에 對하여 經濟企劃院, 農林水産部, 內務部, 建設部, 總務處等 關聯 部處가 모두 異見을 提示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動資部만이 고집하는 까닭은 도대체 무엇인가?

다른 有關部處들은 먼 장래를 내다보는 眼目으로 이에 한결같이 反對 異論을 提起하고 있음을 動資部는 重視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興件을 무시하고 動資部가 그의 所管 立法을 繼續 推進한다면 身論을 무시한 一部 採石業者의 私益만을 擁護하려든다는 印象을 면치 못할것이다.

石材産業法 制定을 反對하는 理由

岩石은 再生産 不可能한 有限資源

우리가 同法案을 굳이 反對하는 理由는 우선 法案의 全體흐름이 開發爲主의 立法案이기 때문에 山林의 公益機能面을 重視하지 않은 단순개발위주의 法案이라는 點에 있다.

山林内の 岩石이란 山林을 構成하는 基本因子로서 山林內에서의 採石은 반드시 山林破壞, 毀損을 引起되어야 하기 때문에 自然景觀의 破壞는 말할것도 없고 그로 因한 後遺症이 얼마나 무서운것인가를 認識하여야 하며 한번 採取하게 되면 아무리 毀損地를 復舊한다하더라도 原狀대로의 復舊는 不可能한 것이라는 것은 極히 常識中の 常識이 아닌가?

우리가 調査한 資料에 依하면 昨年度의 採石 許可地域 94%가 山林內이고 지금도 年間 4,400 萬噸이나 採石된다고 하며 現在대로의 趨勢대로 나간다면 그 可採 埋藏量은 金후 불과 160

여년간의 採石物量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계속 開發만이 能事인가 하는 點이다.

私有財産權 侵害 말아야

다음으로는 前述한바 있는 私有財産權의 侵害이다.

山林은 單純한 木材生産 機能에만 있지않고 國土保全的인 次元과 水資源涵養, 國民保健休養, 精神文化 情緒등 公益機能이 크다는 名分때문에 現行 山林法下에서도 私有財産權行事に 많은 規制로 不利益을 받고 있으나 理解와 使命感으로 忍耐하고 이를 甘受하고 있는 터이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山主의사에 反하는 採石權 設定, 裁決權 認定, 土地收用 可能等 雪上加霜의 私有財産權 侵害의 毒素條項을 法的으로 뒷받침하여 주는 것이 自由民主主義 國家 憲法 精神下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現在의 山林法下에서도 얼마든지 開發이 可能하고 만약 現行法에 不合理한 點이 있다면 이를 개정 補完하는 것이 順理이고 私益보다는 公益을 우선하는 法 精神과 行政이 수반되는 것이 極히 당연한 常識이거늘 採石業者 私益의 營利追求를 爲하여 과연 이렇게까지 하여야 할 當爲性이 어디에 있는지 理解가 가지않는 것이다.

所管 다툼으로 民怨야기 말아야

다음은 들의 所管部處가 어디나에 對해 檢討해 보기로 하자.

무슨 業務이건 所管業務를 分類할 때는 그나라 社會經濟的 背景과 意識水準에 따라 實情에 맞도록 決定을 하리라 본다.

이태리, 日本等은 消費國으로서 韓國과 實情이 달라 日本은 통산성에서, 山林의 公益機能을 重要時하는 미국, 독일등 先進國에서는 石材開發을 山林部署에서 擔當하고 있고 우리나라 現行法上에는 들이 山에 있느냐, 河川에 있느냐, 自然公園內에 있느냐, 軍事施設保護地域內나 하는 등의 所在位置에 따라 각기 個別法에 依하여 統制 管理되고 있는데 動資部에서는 이를 單一法으로 一元化 시키는 것도 立法趣旨의 한가지 名分으로 삼고 있다고 하지만 이 個別法은 個別法 나름대로 각기 그 法의 目的과 特殊性이 있기 때문에 統制내지 採石許可의 判斷은 當該管理部署의 專門的인 固有 機能으로 判斷 處理되어야 하는바, 이를 管理部署도 아닌 動資部에서 一括管掌 行事할 수 없음은 自明한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以上과 같은 一般事項 以外에도 昨年 우리나라 採石許可地域의 94%가 山林內였다는

한가지 事實만으로 보더라도 이를 勳資部에서 管掌하려는 發想을 감히 어떻게 하였는지, 岩石도 源이라는 名分때문이었다면 資源이 아닌 物質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山에 있는 나무는 물론, 바다에 있는 고기도, 들에 있는 農作物도 모두 資源으로 이들도 모두 勳資部에서 管掌하여야 될것이 아닌가

또 앞서 言及한바 있는 再生産이 不可能한 有限資源이므로 일면 國土保全의인 側面과 일면 開發이라는 양면성을 띤 調和있는 制限的 開發이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必須的인 大前提가 있어야 된다고 할진대 開發爲主의 立法보다는 現行대로 山林廳에서 管掌하면서 現行法上 山林法에 不合理한 點이 있다면 이를 改正 補完(山林廳에서는 기히 改正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해 나가는 것이 今 日 當然한 것이고 우리들 山主一同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理由를 더 들자면 우리들 山主 各 個人의 實利에 關한 問題이다.

우리들 山主들은 現在에도 많은 不便을 겪고 있다. 即 國立公園에 편입된 山林과 造景關係는 建設部에서, 墓地에 關한 것은 保社部에서 管掌하기 때문에 相互 연계정책의 모순과 不合理點 때문에 現在에도 불편과 不利益을 당하고 있는 터이다.

여기에 雪上加霜으로 勳資部마저 끼어든다면 民願人의 번거로움과 時間낭비는 不問可知가 아닌가는 政府次元에서의 民願業務의 신속 간소화등 시책에도 위배되는 事項이며 오히려 前述한 國立公園業務 管掌等도 山林廳에서 할 수 있도록 一元化해 주기를 希望하는 것이 山主와 林業專門家들의 見解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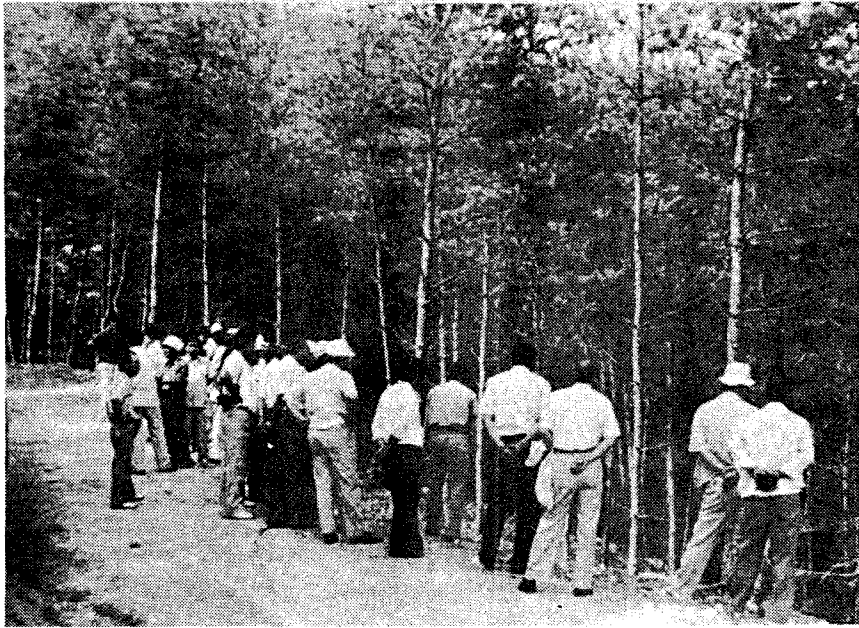
아무쪼록 200萬 山主의 民意가 어디에 있는지를 正確히 把握하여 수렴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며 行政府間의 所管다툼으로 行政府는 行政府대로의 時間浪費와 山主들의 不利益을 招來하여 國民의 生活環境을 害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 푸 르 게鬱 蒼 하 게 ※

山林廳은 온 國民의 피땀어린 精誠으로 이룩한 綠化基盤을 發판으로 從前의 規制와 保全爲主에서 助長과 經營으로 山林政策의 轉換과 앞으로 山林資源化와 山地의 多目的 利用으로 農山村의 所得源 開發과 山林行政의 이미지를 새롭게하고 新鮮하게 부각시키며 活氣차고, 알차고 希望에 찬 未來를 指向하기 爲하여 “푸 르 게 울창하게”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山과 나무를 그리고 國土保全 快適한 生活環境 造成에 拍車를 加하기로 하였다.

林業先進地 視察見學

〈오대산 天然林, 林業機械訓練院 林道現場등〉



林道、間伐木、未來木 選定要領등에
對하여 現地說明을 듣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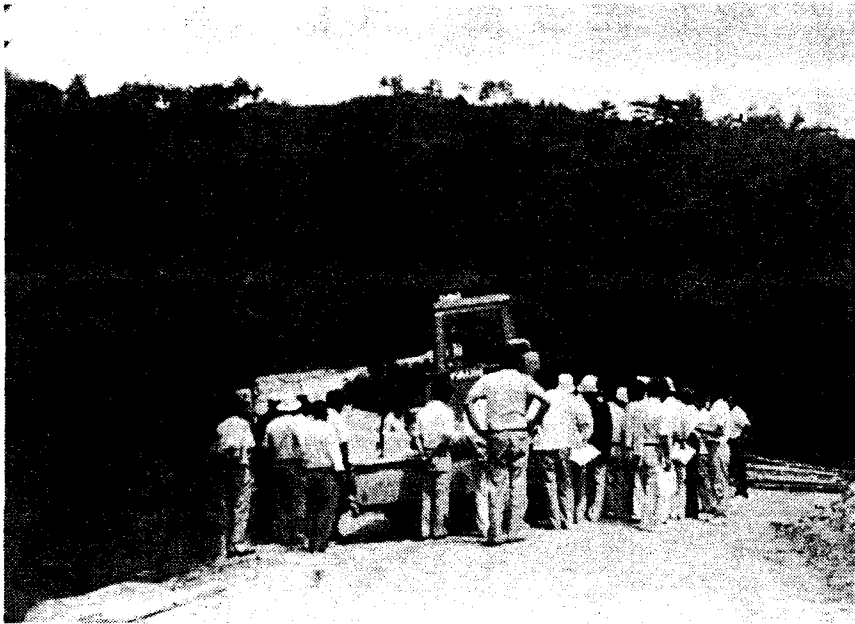
本會 會員 40餘名은 지난 7.7~7.8까지 1박2일 여정으로 오대산일대의 天然林 林相과 江陵 林業機械訓練院의 林道現場등을 視察 見學하였다.

韓榮錫會長의 인솔로 첫날에는 月精寺부근 林相과 上院寺일대의 天然林 林相을 對象으로 한것인데 이는 근자에 針葉樹보다 有用 濶葉樹에 對하여 점차 關心度가 커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病蟲害가 問題되는 針葉樹 單純林보다는 生物學的 見地에서 混濬林의 長點을 直接 보고 觀察할 수 있는 機會를 만든데에도 意義가 있는 것이다.

또 이튿날에는 山林經營上 林道는 가장 必須不可缺한 基本施設이지만 施設費가 많이 들어 難題로 대두되고 있는 林道施設現場을 見學하며 間伐對象木選定, 未來木의 選定 要領, 天然林保育등 現場을 둘러보기 위하여 江陵 林業機械訓練을 訪問하여 馬相圭院長등 關係職員의 案内를 받아 現場을 둘러 보면서 說明을 들었다.

本會는 每年 林業先進地視察을 國內外的으로 實施하여 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會員들의 協會에 對

林道開設 現場에서 說明을
듣고 있다、(해발五〇〇m)



한 關心과 參與度를 높이기 爲하여 意도적으로 觀光을 겸한 코스로 定한것도 事實이지만 每年 그 參加人員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꼭 觀光코스를 擇하였기 때문만은 아닌것 같다.

이번에도 全國이 장마권에 접어들었다는 기상예보가 날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參加希望會員을 선착순으로 마감하여 希望會員 全員을 參與시킬 수 없었던것은 유감이었다.

이번 視察로 見聞을 넓히고 相互 技術情報交換等 本來의 目的 成果도 적지 아니하였다고 믿어지고 會員 相互間의 유대강화와 친목을 도모하는데도 매우 성과가 컸다고 확신한다.

바쁘신중에도 우리를 안내해준 마상규 林業機械訓練院長과 關係職員들에게 感謝드리며 또한 대관까지 마중나와 特殊造林地를 案内 說明해준 유기오 평창관리소장과 관계직원 또 歸路에 인재관리소 職員들의 따뜻한 영접에도 感謝의 인사를 드린다.

끝으로 이번 視察旅行에 物心 양면으로 支援해주신 江原地域의 李泰聖 副會長, 江陵地域의 洪東華 朴文富, 張永圭, 李錫元 諸 理事님들의 따뜻한 영접과 厚待에 感謝를 드린다.

育林으로 資源造成 앞당기자

本會 在京任員 懇談會

〈金演表 山林廳次長, 朴吉洪 林試場長

祝賀, 相見禮 兼해〉

本會 韓榮錫 會長을 비롯 在京會員 20 餘名은 지난 7.3 鄭埰鎭 山林廳長, 金演表 次長, 朴吉洪 林試場長, 鄭泰鳳 造林局長等 山林廳 고위간부들을 外交俱樂部에 招待하고 懇談會를 가졌다.

이날 모임은 金演表 次長이 林業技術界 人事로서는 처음으로 山林廳 次長이 되고 그 後續 人事로서 朴吉洪 營林局長이 林試場長, 柳鍾根 研修院長이 營林局長이 된것에 對한 祝賀와 相見禮를 兼한 모임이었는데 柳 營林局長은 事情이 있어 參席치 못한 가운데 進行되었다.

이자리에서 鄭廳長은 인사말을 통하여 招待해 주어서 感謝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廳長도 林業專門家가 登用되어 林業政策 決定도 하고 政界에도 많이 進出하여 林業人 權益保護를 爲하여 努力해야 하며 또 그렇게 될것을 確信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논배미의 물꼬를 한번에 터 놓을 수 없드시 重林政策도 단번에는 期待할 수 없고 最善의 努力으로 漸進的, 段階的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이어 金演表 次長도 祝賀해 주어 感謝하다고 인사말을 하면서 次長은 廳長을 補佐하는 자리이니 만치 任務遂行에 最善의 努力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날 모임에서는 자연히 현안 問題點으로 대두되고 있는 솔잎혹파리등 병해충방제에 대하여 많은 話題가 이어졌는데 鄭廳長은 금년 防除豫算이 모두 34 億에 불과하여 問題點이라고 指摘하면서 研究官들은 決定的인 驅除方法이 없다고 하나 科學의 時代에 사는 우리가 하겠다는 執念으로 集中 研究가 進行되고 豫算이 增額되면 좋은 結實이 있을 것을 確信한다고 하였다.

石材開發은 開發만이 能事는 못돼

有限資源이므로 制限的 開發方針

이어 요즈음 다시 대두되고 있는 石材開發業務와 關聯하여 話題가 이어지자 鄭廳長은 動力資源部에서는 特別法을 만들어 적극 開發하기 爲하여 採石權과 裁決權을 認定하려 하고 있으나 石材生産은

許可地域의 94%程度가 山林內이고 年間 總 4,400 百萬톤을 生産하는데 이런 趨勢대로 하면 앞으로 160餘年間밖에 採取할 수 없는 有限資源이기 때문에 開發만이 能事가 아니고 保全과 開發의 兩面性을 띤 制限的 開發을 하도록 하는것이 山林廳의 根本方針이라고 말 하였다.

山林에 對한 國民의 需要가 달라지고 있다

休養林 造成으로 對應策 講究

또 休養林 造成으로 話題가 이어지자 國民들의 經濟生活水準이 向上되고 意識水準이 달라짐에 따라 山에 對한 國民의 需要가 달라지고 있으므로 이의 對應策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기히 檢討中에 있으며 어떻게 接近하느냐 하는 問題를 實務進이 研究 檢討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장마철에 對備한 산사태 豫防對策 - 山林廳

山林廳은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산사태 被害豫防 및 緊急復舊對策을 樹立하여 사전대비에 만전을 期하도록 全國 市·道 및 營林署에 指示하였다.

- 山林廳이 指示한 內容에 依하면 被害常習 및 毀損地等 산사태 發生危險地域(95 個市·郡·區, 175 邑·面·洞, 228 個所)은 물론 우발적인 산사태 發生우려지역에 對하여는 반드시 장마기 이전에 일제 점검하여 豫防對策을 강구함은 물론 장마기내에는 수시 기상과악 및 關係公務員은 비상근무토록 조치하였다.
- 산사태 發生우려지역의 住民은 關係機關의 災害對策本部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維持하여 사전 豫防措置 및 發生時 緊急復舊 對備에 萬全을 期하도록 하고
- 全 山林毀損 許可地(土石採取許可地, 他法에 依한 開發地域 包含) 및 山林事業地(造林, 사랑, 養苗, 林道等)를 미리 점검하여 산사태 發生우려가 있다고 判斷되면 사전에 豫防措置토록하여 被害를 最小化토록 指示하였다.

밤나무 害蟲 航空防除 實施 — 山林廳

山林廳에서는 山地資源化를 爲하여 1, 2次 치산녹화기간중 政府에서 苗木代等を 積極 支援하여 全國 200千ha의 山地에 식재한 밤나무에 증실해충 被害豫防을 爲하여 헬기를 동원 航空防除를 實施 하므로서 植栽者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 좋은 反應을 얻고 있다.

밤나무害蟲 被害는 開花期 以後 어스랭이 나방등 잎을 가해하는 害蟲과 밤바구미 복숭아 명나방등 밤알을 가해하는 害蟲 被害로 生産量이 減少되거나 商品價値를 떨어뜨리고 있어 밤生産에 큰 影響을 주고 있다.

山林廳에서는 6月下旬부터 8月下旬까지 밤主山團地인 전남 광양, 경남 산청, 하동등 23個 市郡에 5대의 헬기를 支援하여 總 45,000 ha의 航空防除를 實施하고 있다.

이번 實施하는 航空防除는 농번기 農村의 勞務를 減省하고 75億원의 人件費 節減 및 20,000 %의 밤알增産 效果로 農村所得增大에 寄與하므로서 農山村 住民들로부터 좋은 反應을 얻고 있다.

한편 航空防除期間中에는 양봉과 양잠등의 被害豫防을 爲하여 該當市郡에서 반상회를 通하여 알리는 地域別 약제살포 일정에 따라 甁잎을 사전 比축하거나 벌을 가두어 둠으로써 被害를 豫防하도록 當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밤나무에서 每年 60,000 %以上の 밤알을 生産하여 86年 450億원의 農家所得을 올린바 있으며 全體 生産量의 50 % 이상을 日本등지에 輸出하여 5,300萬弗의 外貨를 벌어들였다.

피서철 山林被害 豫防團東 — 山林廳

○ 山林廳은 여름 피서철을 맞이하여 山을 찾는 인파가 많아 各種 山林毀損이나 被害가 發生될 것에 對備하여 豫防團東을 철저히 할 것을 各 市道와 營林署에 緊急 指示하였다.

○ 이번에 山林廳이 指示한 피서철 重點 豫防團東 事項으로는

- 지정 야영장이 아닌 곳에서 山林을 不法毀損 텐트를 치고 오물을 마구 버리는 行爲
- 약수터 및 유원지등의 山林에서 자리세 징수를 目的으로 山을 파헤쳐 유흥장소를 만드는 行爲
- 도시근교 야산을 毀損 베드민턴장등 運動施設을 만드는 行爲
- 入山者들이 모닥불을 피우기 爲해 나무를 마구 꺾는 行爲
- 회귀수목 및 자생난, 바위웃, 분재용 수목등을 不法採取하는 行爲
- 오미자, 산딸기등 산약채 채취를 위해 나무를 마구 베는 行爲
- 바위 및 수목에 낙서등 景觀을 해치는 行爲등이다.

표고골목의 害蟲防除로 표고 生産量 增大

山林廳 林業試驗場에서는 표고栽培用 골목에 털두꺼비하늘소로 인한 被害가 全國적으로 發生하여 표고 生産量을 減少시키고 있는 털두꺼비하늘소의 生態와 效果的인 防除方法을 구명함으로써 표고生産 增大와 골목의 수목연장에 크게 寄與하게 되었다.

林業試驗場에서 구명한 內容에 依하면 표고골목을 加害하는 害蟲類中 가장 구제가 어려운 害蟲은 털두꺼비하늘소로써 被害도 全國적으로 發生되고 있으며 被害量도 골목의 30%以上(年間 被害量 150萬本 以上)을 차지하고 있어 표고生産量 減少에 直接的인 原因이 되고 있으며 털두꺼비하늘소로 인한 표고·生産에 미치는 주 原因은 균사가 자라는 수피밑의 목질부 表面을 食害하여 표고 균사의 發育阻害로 표고 生産量 減少와 해로운 균의 侵入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골목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고 한다.

또한 털두꺼비하늘소의 加害特性은 그 해에 種균을 接種한 골목만을 加害하며 골목의 직경이 15cm 以下인 골목을 加害하되 特別히 10cm 未滿인 골목을 集中的으로 加害하며 본 害蟲의 生活經過는 年1回 發生하는 것이 大部分이나 2년에 걸쳐 1回 發生하는 개체도 있다고 한다.

성충으로 벌채원목밑, 바위밑, 낙엽사이등에서 월동하고 4月中旬부터 活動하기 시작하여 4月下旬부터 8月初旬까지 約 3個月에 걸쳐 산란하여 유충의 加害 最盛기는 8月이라고 한다.

防除方法은 본 해충이 산란한 以後의 藥劑撒布는 效果가 極히 낮으며, 幼蟲 加害기의 熏蒸방법은 표고균사에 나쁜 影響을 줌으로 使用이 不可하고 따라서 본 害蟲의 防除는 산란을 防止하여야 함으로 월동 성충이 골목에 모여들기 이전인 4月中旬부터 7月下旬까지 간격 5mm 以下인 나이론 망으로 골목을 包圍하여 성충의 接近을 차단하며 산란초기(4月下旬)부터 2주 간격으로 지오릭스 3% 劑를 골목표면에 4回程度 撒布하여 成蟲을 驅除하여야 한다.

林業育林裝備·산불진화장비

有 備 物 産 (株)

代表理事 朴 浩 鎮

서울特別市 鍾路區 志信洞 27 - 8

전 화 : 762 - 8588, 8589

잣나무넓적잎벌의 生態와 防除

1. 가 해 수 종 : 잣나무
2. 분포및피해지역 : 중부지방 (경기, 강원)
3. 피 해 양 상 : 피해를 받은 나무는 대부분 수관 상부에서부터 가지가 앙상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며, 피해발생후 3~4년이 경과하면 잎은 거의 없고 입목은 고사 현상이 나타난다.
4. 생 태 :
 - 1년에 1회 발생하며, 약 2%가 2년에 1회발생
 - 5~25 cm깊이의 땅속에서 월동할 유충은 5월하순~7월중순에 번데기가 됨
 - 성충의 우화기는 6월상순~7월하순 (최성기 7월상순) 으로 약 45일간이며, 우화초기에는 숫컷이, 후기에는 암컷이 우화량이 많음.
 - 우화한 성충은 풀잎, 나무잎 또는 나무가지에서 교미와 동시에 잣나무잎 끝부분에 산란함. 난기 10일 내외
 - 부화유충은 잎기부로 내려와 실을 토하여 원통형의 집을 짓고 그속에서 잎을 절단하여 끌어 당기면서 섭식함.
 - 유충기간은 약 20일이며, 4회탈피, 일생동안 약 9.5 m (19개잎) 을 섭식하며, 그중 4~5령기 (약 10일 동안) 에 전체의 80%이상을 가해함.
 - 노숙한 유충은 7월중순~8월하순에 지표로 낙하하여 땅속으로 잠입하여 흙집 (土窩) 을 만들고 월동함.

잣나무넓적잎벌의 생활사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충태												
월 동 유 충						←————→						
번 데 기						←————→						
성 충							←————→					
알							←————→					
가 해 유 충							←————→					
추기낙하유충								←————→				

※ 1년에 1회 발생하는 것

5. 방 제 법

약 제 방 제

방제시기 : 잣나무잎을 가해하는 수상 (樹上) 의 유충기 (7월중순~8월상순)

- 유효약종 : 주론 (Zuron) 또는 알시스틴 (Alsystin) 25% 수화제
나크 (NAC) 50% 수화제
- 효 과 : 90%이상 (살충율 및 구제율)
- 살포방법

구 분	약 종	살포농도	살포약량 (회석액)	살 포 횟 수	살 포 시 기
항공살포	주론 및 알시스틴	300 배	50 l/ha	1~2 회	7월중~하순
	나 크	40	50	2~3	7월하~8월상
지상살포	주론 및 알시스틴	6,000	2,800	1~2	7월중~하순
	나 크	1,000	2,800	2~3	7월하~8월상

※ 지상살포 약량 (회석액) 은 25년생 표준임지 기준임.

칩 除 去 에 朗 報

새로운 근사미 注入器 試製品 開發 - 成功率 100% 確信

칩을 除去하기 爲한 새로운 근사미 注入器가 開發되어 喜消息이 되고 있다. 그동안 造林地와 育林對象地에 ㆍ무성하게 뒤덮인 칩으로 말미암아 어린 造林木은 물론, 成林地에도 많은 被害를 주고 있어 이를 除去하기 爲하여 “근사미”라는 藥劑가 使用되어 왔다.

그러나 종래의 이 근사미 藥劑 使用方法是 칩의 元根을 찾아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藥液이 묻은 綿棒을 일일이 꽂도록 되어 있음으로써 많은 時間이 所要되고 不便하므로써 實際 實用上的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注入器의 開發은 다름아닌 바로 그 근사미를 使用하여 칩을 除去할 수 있는 方法을 처음으로 考案해낸 李景漢 (山林廳 造林課 農林技佐) 氏가 이번에 다시 쓰기에 쉽고 간편한 注入器를 開發해 냄으로써 能率的이고 經濟的으로 칩을 除去할 수 있게 되어 많은 篤林家를 비롯, 山主들의 關心을 모으게 되었다.

아직은 試製品으로 商品化 段階는 아니지만 거의 100% 가까운 成功率를 確信한다고 알려졌는데 크기는 길이가 25 cm内外 직경 4 cm内外의 작은 T字型 注射器와 같은 器具이며 使用法은 칩 줄기를 찾아 注入器 끝을 줄기에 대고 壓力을 加하였다 때면 0.3cc의 藥液이 自動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다. 약통은 등에 가볍게 지고 다닐수 있도록 器具와 연결되어 使用에 便利하도록 되어 있고 용량조절이 可能한 것이 特徵이며 금후 市販價格은 대당 15,000 원 程度가 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외용진통·소염제
바이겔 크림



“Indomethacin 의 강력한 Prostaglandin 합성 억제작용으로 인한 소염·진통 효과는 Piroxicam 이나 Naproxen 제제와 동등하거나 더욱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草堂藥品工業株式會社

본사 : 서울·종로구 종로5가 36-1 전화 : 741-1540, 743-6161/2
출장소 : 부산 (051) 66-3747 대전 (042) 253-8580
대구 (053) 756-1833 전주 (0652) 75-8064
마산 (10551) 43-1923 광주 (062) 232-0701
원주 (0371) 42-8204